

# 둔치는 고수부지가 아니다

- 고수부지의 우리말은 물터, 강터, 홍수터, 물오름터 -



이삼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samhee.lee@kict.re.kr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한강 둔치에서 돛자리 깔고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한강 여의도 둔치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고.....’ 라는 일부 신문기사나 방송보도를 근래에 자주 접하게 된다. “아니! 둔치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천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문맥의 앞뒤를 살펴보면, 한강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를 둔치라 일컫는구나 하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가 있다.

고수부지(高水敷地)는 한자로 된 용어인 반면, 둔치는 한글로 되어 있어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천공학 혹은 지형학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매스컴이나 일반시민들에게는 고수부지라는 용어가 전문용어라 말뜻 자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니와 일본말로 비쳐졌을 것도 같다. 그래서, 한국적인 순수한 말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고수부지의 뜻으로 둔치로 적당히 바꾸어 대충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용어의 정의에 충실해야 할 하천분야, 생태계, 조경분야에 관련한 일부 전문가 및 학자들마저 어찌된 일인지 간혹 고수부지와 둔치를 혼돈하고 있는 듯하여 놀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최근 혼돈해 사용하고 있는 둔치와 고수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상세히 살펴보

고, 어원자체가 불분명한 고수부지를 대신할 새로운 용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 둔치는 물의 가장자리

결론부터 말하면, 둔치와 고수부지는 그 의미가 아주 다르다. 둔치라는 말뜻에 대해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에서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국어대사전(이희승편저, 민중서림)에서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물가의 언덕’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어대사전에서는 둔치를 물가의 가장자리 외에 ‘물가의 언덕’이라고도 보충 설명한데 대해서는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의 바닥형태에 대한 정말 예리한 실증적 관찰에 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하천에서의 흐름에만 국한하여 살펴보면, 하천이 폭넓게 펼쳐지는 이른바 복단면 하도형태(주: 고수부지의 형태가 나타나는 하천구간)가 주로 형성되는 중하류구간에서 홍수시 저수로의 하상재료 일부가 떠올라, 저수로보다 비교적 높고 저수로변에 가까운 고수부지에 가라앉아 주위보다 약간 볼록하게 퇴적하는 하천횡단방향의 土砂分級현상(주: 흐름의 형태가 다름에 따라 하천횡단방향으로 하상재료가 크기별로 나뉘어져 쌓이는 현상)마저 지적했으니 말이다.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을 면밀히 관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둔치가 고수부지가 아니라 물의 가장자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옛문헌의 두 용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병자를 업은 손팔만에게는 천천히 따라오라고 일러놓고 빠른 걸음으로 귀목나무들이 늘어진 둔치를 넘어 마을로 접어들었다.

(문순태 “파오르는 강”에서)

‘귀목나무들이 늘어선 둔치를 넘어’라는 문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둔치는 물가를 뜻한다는 사실을 하천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생태계 전문가이거나 하천전문가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천에서 나무들이 늘어설 수 있는 곳은 상류하천(주:공학적으로는 단단면 형태의 하도형태를 띄는 구간)의 물가이거나 아니면 중류지역(주: 고수부지가 잘 발달하는 구간)으로써 복단면 하도형태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저수로변이고, 하류에서는 상류하천과 비교적 같은 특성을 지닌다. 다시말해, 나무가 일렬로 늘어설 수 있는 하천공간은 고수부지가 아니라 물가임을 뜻한다. 고수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키 작은 나무나 풀외에 모래나 자갈들로 구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키 큰 나무들도 자라며 대개 나무들이 일렬로 늘어서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둔치를 넘어’에서 보듯이 고수부지는 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기서 언급한 둔치는 고수부지가 아니라 바로 물가임을 밝혀 주고 있다.

「*어차피 한둔할 수밖에 없을 바엔 늘 둔치에 웅크려 이슬 젖어 자다 짐승 만나기보다는, 좀 더 덩치 큰 것에 기대는 게 나으려니 싶었다.*」

(이문구 “오자룡”에서)

위 용례를 살펴보면, 더욱 더 둔치의 의미를 선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늘 둔치.....좀 더 덩치 큰 것에 기대는’에서 보듯이 둔치라는 말은 하천뿐만 아니라 고수부지가 형성되지 않은 늪나 호소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덩치 큰 것에 기대는’라는 말은 약간 경사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을 뜻하므로 영락없이 물가의 약간 볼록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늘 둔치라는 말을 늪가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둔치라는 뜻은 하천수로변에서 물결의 영향을 직접 받아 형성되는 물가뿐만 아니라 호숫가나 바닷물이 육지에 닿는 바닷가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둔치에 대한 의미를 굳이 하천에서만 국한시켜 하천공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하천수면이 육지역에 닿는

곳 즉 물가라 볼 수 있다. 물이 찰랑거리는 그야말로 물의 가장자리가 된다. 그러나, 물의 가장자리는 유량에 따라 그 위치가 바뀌게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물의 가장자리라고 하면 하천 평상시 물가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둔치는 흐름이 큰 홍수 때가 아닌 보통일 때 하천수면이 육지역에 닿는 곳 즉 물가라 볼 수 있다. 평상시 혹은 보통일 때의 하천수면이라 하면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천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저수로에 흐름이 가득 찼을 때까지의 수위로 보면 무난할 것 같다(주: 하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균연최대유량일때의 수위에 근거). 그렇다면, 서울구간에 위치한 한강에서 둔치의 영역은 넓게 보아 저수로변에 어느정도 볼록하게 유사가 퇴적한 부분을 포함한 저수로호안의 경사면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정의하의 둔치(주: 이하에서 둔치라는 의미는 앞에서 정의한 평상시 물가의 의미로 사용함)는 물과 물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므로 하천공학, 생태학, 지형학, 수환경공학 측면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 된다.

### 고수부지는 잘못된 번역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을까? 고수부지라는 용어는 그 동안 막연히 일본어일 것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사실 일본에서조차 정확히 그런 용어는 없다. 필자가 추측하건대, 이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한강종합개발 당시 일본에서 하도계획시 사용하던 「高水敷(코우스이지끼)」를 잘못 번역하여 사용함에 따라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高水敷」의 「敷」는 일본어 체제인 음독이 아닌 훈독으로써, 일반적으로 단지계획상 개발의 대상으로 쓰여지는 敷地の 뜻이 아닌 “...(을) 깔다/펼치다/펼치다” 또는 “...(가) 퍼지다”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高水敷」는 저수로에 가득 차서 흐를 때보다 더 큰 물인 高水(주: 홍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출이 발생했을 때 양적인 의미를 지니고, 고수는 그 홍수 때의 위치 즉

수위를 내포하고 있음)가 깔려서 먼저 나가는 평면적인 넓은 장소라는 뜻으로 그야말로 홍수소통과 연관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하도형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을 때와 큰 홍수 때의 유량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河狀係數와 지형형태에 크게 좌우되는데, 하상계수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하천이나 일본하천과는 달리 구미하천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高水敷」는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들어 내는데 솜씨를 발휘하는 일본 하천전문가들이 일본하천특성에 잘 어울리게 만들어낸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제방내의 홍수 범람지라는 공간적 의미인 「高水敷」의 敷를 우리나라에서 敷地(주: 토지활용면을 중시하여 부지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임)로 잘못 인식한 결과 高水敷地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다. 여하튼, 잘못된 번역이든 아니든 그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 어느새 고수부지라는 용어가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미하천에서는 floodplain(주: 우리나라에서 홍수터로 번역하는 예가 많은데 범람원으로 번역함이 타당할 것임)를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미하천의 경우 제방의 형태와 위치가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경우에 따라, floodplain은 제방밖으로 홍수가 넘치는 범람역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방 안쪽 하도내 범람지만을 엄격히 규정하는 고수부지와는 그 의미나 사용범위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미하천에서 하도내 high level berm(주: 수변에 형성되는 일종의 砂州형태)이 고수부지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모에서나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high level berm은 완전히 고수부지의 뜻을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나라마다 유출, 지형, 하도 등 자연특성이 다름에 따라 하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발생적이든 인위적이든간에 이와 같이 형성된 고수부지는 홍수소통, 제방침식보호, 토지활용, 생태계보전 등과 관련이 있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상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일본의 河川砂防技術基準(주: 우리나라의 하천시설기준에 해당함)에서 정의한 종래

의「高水敷」도 그 내용이 다소 애매 모호하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하천공학이나 생태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해당하천의 하도특성(주: 하천이 갖고 있는 현 모습을 나타내는 특징)과 자연생태계보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주: 하천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본의 하천법을 1997년에 대폭 개정함)을 반영하여 「高水敷」의 정의를 수정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고수부지에 대한 우리말 뜻을 찾는다

일본에서도 물가의 뜻으로써 우리나라의 둔치에 부합하는 의미로 「水際(미즈가와)」, 「岸(기시)」, 「渚(나기사)」, 「磯(이소)」 등의 용어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磯(이소)」는 하천보다 바닷가의 둔치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 둔치는 일반적으로 「水際(미즈가와)」나 「渚(나기사)」라고 많이 사용하며, 하천의 경우는 「河岸」, 호수의 경우는 「湖岸」따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라는 용어 자체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고수부지의 뜻으로 陸地域과 水域이 맞는 물가의 뜻인 둔치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더군다나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수부지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이미 정착되어 버렸고, 하천전문가용의 전문용어집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나 혼돈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수부지를 홍수터(주: 하천전문가사이에서는 고수부지의 뜻으로 실제 홍수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다. 특히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한 고수부지만을 일컫는 경우는 홍수관리터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홍수터 혹은 홍수관리터는 제방밖으로 홍수가 넘쳐 침수하는 구역을 지칭하는 범람원과 구분하여 하도내의 범람지에만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만

약 순수한 우리 고유의 말이 더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즐겨 썼던 물터(주: 하천형태를 더 세밀히 구분하여 고수부지는 큰 물터, 中水敷地는 보통 물터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나 강터 등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고수부지를 홍수터 혹은 홍수관리터나 물터 또는 강터, 물오름터로 부르는 것이 둔치라는 용어보다 하천공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에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강과 같이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스컴이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강시민공원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둔치는 어디까지나 전술한 바와 같은 둔치 본래의 의미인 '물가의 가장자리'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나, 둔치를 하천공학적 전문용어로 채택함에 있어 공

학적 의미의 한계를 정확히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적, 지형적 현상을 적절한 용어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구미하천과는 여러모로 다른 우리나라의 하천특성에 알맞는 한국적인 말뜻을 찾거나 정의함에 있어, 하천분야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수부지와 같이 국적 불명의 용어가 생기는가 하면 또한 일반인들과 타 분야 전문가들이 고수부지를 둔치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용어상의 곡해나 오류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곡해나 오류는 나중에 이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치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하천은 다른 국토분야와는 달리 많은 분야와 연관을 맺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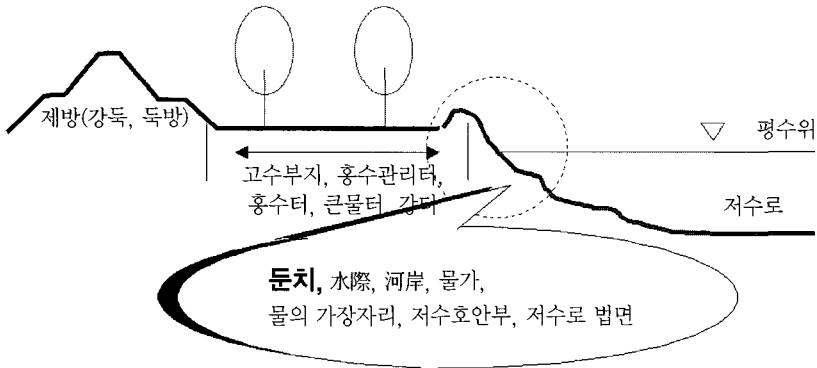


그림 1. 대표적인 복단면하도(중하류하천)형태에서의 고수부지와 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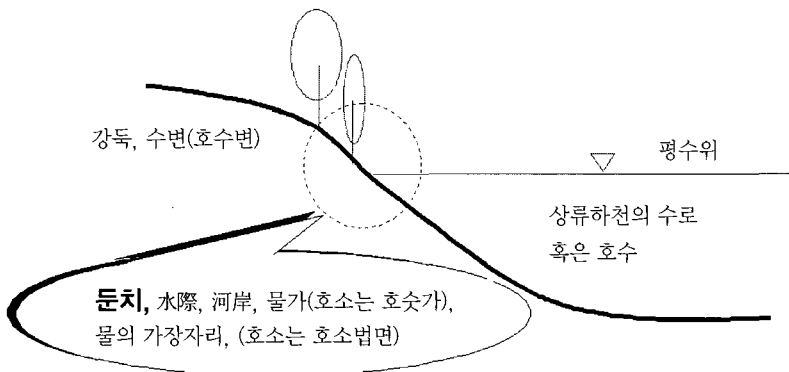


그림 2. 대표적인 단단면하도(상류하천) 및 호소 형태에서의 둔치(본그림은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322호를 보완하였음)

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급속히 외래어화 되어 가는 우리의 하천관련 전문용어들을 관련 전문가와 국어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우리 말뜻을 찾아 두면, 하천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 참고 및 감사의 글

이 글은 필자가 한국수자원학회지 1977년 10월호,

국토연구원의 국토정보 1998년 9월호, 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322호(1999.6)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인용한 두 용례는 필자의 글에 대한 국립국어연구원의 견해(‘고수부지’의 순화 용어 ‘둔치(마당)’에 대한 회신, 어실 86070-81, 1999.5)를 밝힌 내용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신해 주신 국립국어연구원에 감사 드린다.

• 다음은 뉴스메이커에 실린 우리말 국어학자이신 이오덕 선생님의 글입니다.

‘둔치’가 아니고 ‘강터’다

이오덕(우리말연구가)

‘고수부지’란 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둔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 과거 농촌에서 유행했던 “밀서리” 재현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의 낮은 둔치에 있는 “우리 밀밭”에서 열린다(동아 99, 6, 17)

△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19일 오전 10~12시 국회의사당 뒤흘쪽 한강 둔치 여의도지구에서 “밀서리 재현” 행사를 벌인다. 행사는 한강둔치에 조성된 우리 밀밭에서...(중앙 99, 6, 17)

이렇게 쓴 이 “둔치”란 말을 사전에서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라 풀이해 놓았다. 그렇다면 그 물가, 물 가장자리에 어떻게 밀밭이 있을 수 있는가?

“고수부지”는 일본말이지만 “둔치”도 잘못 쓰고 있다. 일본말 사전에 “고수부지”는 없다. 그러나 “부지”가 일본말이니 그 앞에 “고수”를 붙인 것이 일본말 흉내낸 꼴이 되었다고 할밖에 없다.

“둔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우리 말이라면 쓸 수밖에 없지만 물고기 이름 같은 느낌이 들고, 모두가 귀에 설어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말이 “고수부지”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놓은 글이 나왔는데 하천공학을 전공한 이삼희 씨가 쓴 “〈둔치〉는 고수부지가 아니다”(한글학회 <한글 새소식> 99, 6)란 글이다.

어려운 말로 좀 길게 써 놓은 그 글에서 여기 필요한 요점을 말하면 “고수부지”는 큰물이 저서 강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물에 잠기는 곳이고, “둔치”는 보통 늘 흐르는 강물이 육지인 땅에 와닿는 그 곳을 가리킨다. 그러니 두 곳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나도 그 글에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고수부지”는 “강터”나 “물터”라 했으면 좋겠고, “둔치”는 “물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일본말에는 “미즈기와” “나기사” “이소”와 같은 말이 많은데, 우리는 “둔치”란 말뿐이고, 이것도 모두가 귀에 설은 말이 되었다. 또 일본말 흉내낸 “고수부지”를 쓰면서 그것조차 “둔치”와 뒤섞어 놓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훌륭한 말과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가나 바닷가의 자리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말 하나 가지지 못해 찢찢매는가? 그 까닭은 우리 조상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문을 숭배하여 한자말만 쓰면서 우리 말을 천대했기 때문이다. 우리 것을 버렸기 때문이다.